

한용운 · 유산과 전통 · 애국주의*

최현식**

〈차 례〉

1. 북한의 '현대조선문학사', 한용운을 호명하다
2. 주체문학론, 유산과 전통, 그리고 한용운
3. 한용운 시, 혁명적 애국주의와 인민적 서정성
4. 한용운 · 사회주의 · 결사의 사상 감정

[국문초록]

이 글은 1980년대 후반 북한 문단에서 극적으로 복권되고 새롭게 가치화된 한용운 문학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다. 당시까지 한용운 문학은 부르주아지의 문학형식과 불교 중심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 아래 북한문단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김정일이 주도한 주체문학에 의해 애국주의와 인민주의에 대한 헌신, 항일혁명운동의 적극적 실천을 새롭게 평가받았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한용운 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 전제는 한용운 문학이 김일성의 항일혁명운동과 그 문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보적 전통과 유산에 해당된다는 당문학(주체문예)의 결정이었다. 본고는 이런 정황에 기반한 한용운 시의 복권과 재평가를 첫째, 북한 인민들을 독자대중으로 설정하는 문학잡지와 현대시선집, 문학신문의 논문과 기사, 둘째, 『조선문학사』로 대표되는 학계의 공식 입장과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용운 문학은 김일성의 혁명운동과 항일문학을 절대화하기 위해 조국=임에 대한 애국심과 인민에 대한 사랑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문단이 진보적 이념과 애국주의를 더욱 입체화하기 위해 문학적 형식과 수사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를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의 한계로 지적되던 불교적 사유와 상상력도 주체철학과의 연관 속에서 새롭게 평가되어 그 부정적 가치를 거의 넘어서게 되었다. 현재 한용운의 작품은 북한판 조선문학사에서 확고한 지위와 탁월한 평가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

* 이 글은 인하대학교 일반교수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음

**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하면 그의 독립 운동과 작품 활동이 문학시를 넘어 김정일의 『주체문학론』과 북한의 필독서이자 유훈통치의 교서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등재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주제어] 한용운, 북한, 조선문학사, 애국주의, 항일혁명운동, 주체문학론, 전통, 유산, 결사(決死)

1. 북한의 ‘현대조선문학사’, 한용운을 호명하다

어떤 시인의 작품에 부여된 국민의식이나 공동감각은 무엇을 통해 판별될 수 있을까. 복잡한 조건이 필요할 듯싶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1차적 검증은 개인의 미적 감각과 국민의식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초·중등 과정의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가와 작품을 확인해보는 것이다. ‘국어’와 ‘국문학’이 지시하듯이, 거기 실린 작가와 작품은 주어진 역사를 넘어 국민 누구나 읽을 만한, 아니 읽어 마땅한 국가적·민족적 당위성과 윤리성을 공인받은 존재들이다. 물론 시대의 요구와 권력의 필요성에 의해 세세한 인명과 항목에는 어쩔 수 없는 부침 따르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상과 이념에 간헐하거나 그렇다고 낙인찍히지 않는 한 ‘국민(민족)문학’의 반열에 한번 올라선 작가와 작품은 새로운 읽기의 대상이기를 그친다. 오히려 그것들은 반복적·지속적으로 칭송되고 암기되어 마땅한 ‘잘 만들어진 무엇’으로 국가와 국토, 그리고 국민의 모든 곳을 파고들며 그 내부를 장악한다.

그런 의미에서 흔히 ‘정전(正典, canon)’으로 명명되고 수용되는 국정·검인정 교과서 소재의 작가와 작품은 그것이 미(美)든 이념이든 언제나 개인을 넘어선다. 그것들은 특히 근대적 공동체, 다시 말해 그것의 가장 굳건하고 이상적인 실현물로 간주되는 국민국가의 정체성 형성과 확장에 공헌하는 가치생산의 텍스트¹⁾로 거듭나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났다. 그래야만 특정 권력에 의해 ‘발명된 텍스트’를 넘어 원래부터 존재했다고 믿어지는 ‘민족(국민)

1) 더 자세한 내용은 하루오 시라네(Haruo Shirane) · 스즈키 토미(鈴木登美) 편, 왕숙영 역,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17~22쪽 참조.

문학'으로 규정되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문학사의 정전 발명과 가치화 과정도 이 보편적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일제가 가세한 서세동점의 식민화가 근대문학과 정전 형성의 출발점을 이룬다는 특수성은 '조선(한국)적인 것'에 가장 합당한 미와 이념의 건설을 '민족(국민)문학'의 궁극적 과제로 밀어 올렸다. 이 지점에 자신의 역사와 미래를 스스로 그려 보일 줄 아는 이상적 텍스트, 곧 의식적으로 고안된 정전의 호출과 재정립이 해방 이후 현대문학사의 포기할 수 없는 책무로 떠오른 까닭이 숨어 있다.

해방과 더불어 정전의 지위에 올라선 대표적 시인을 꼽으라면 만해 한용운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그는 1946~2009년에 해당하는 건국기~제7차 교육 과정까지의 작가 빈도수에서 17회를 기록했다. 문협 정통파로서 문단권력을 거머쥐었던 생존 시인 박목월, 김광섭, 박두진, 조지훈, 유치환, 서정주, 노천명을 제외하면 앞에서 네 번째 순위였다. 그를 앞서는 서거 시인은 김소월, 김영랑, 이육사뿐이었다. 1988년 월북문인 해금과 더불어 작가 빈도수에서 적잖은 변화가 발생한다. 교수요목기 14회로 1위를 차지했던 정지용의 순위 복귀와, 제6차 교육 과정까지 한 차례도 등장한 적 없는 백석의 급상승이 눈에 띈다. 이와 더불어 인상적인 것은 전(全) 교육 과정에서 압도적 빈도수를 자랑하는 김소월을 제외하곤, 제1차 교육 과정(1954~1963)부터 등장한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가 여전히 상위권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다.²⁾ 한용운 시편으로 한정하면, 현재 사용 중인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는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까닭」, 「수의 비밀」, 「당신을 보았습니다」가 실려 있다.³⁾ 이 사실만으로도 한용운은 누군가의 말처럼 “시대의 제약을 넘어서 한국의 청(少)년들에게 애독되는 현재형의 시인”⁴⁾임이 분명해진다.

여기서 자연스런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순문학을 강조함으로써 시간의 때를 탈 것 같지 않던 문협 정통파의 시들이 급속히 퇴거되는 반면, 한국전쟁

2)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 I』,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6(2013), 400~405쪽.

3) 강영미는 「남북한 시선집의 한용운 시 등재 양상」(『대동문화연구』 96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을 통해 남북한 문학사에서 진행된 한용운 시의 정전화 과정과 그에 얽힌 특색을 살렸다.

4) 김인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는다』, 열림원, 2003, 5쪽.

후에야 강렬한 민족주의에 충동된 지배 권력과 독자들에게 의해 ‘저항시인’으로 뒤늦게 발명된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의 시가 숭고성을 더해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 답변으로는 여전히 미완이었던 일제 잔재의 청산과 훼손된 민족 정체성의 회복이 제출될 법하다. 그러나 저항의 지평은 침탈과 억압의 과거, 다시 말해 일제의 폭압적 지배와 통치를 상수로 거느린다. 이것에만 주목하는 순간 이들의 내면과 언어에 들끓었을 탈식민의 상상력은 미래가 삭제된 ‘지금·여기’의 외침내지 고백 정도로 제한되어 해석되는 불우를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세 시인의 위상과 가치가 제1차~2차 교육 과정(1954~1973)에서 현격히 강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20여 년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국민국가의 재건과 역사적 사명으로 선포된 ‘민중중흥’을 위해 정치·경제·문화·군사·일상의 전면적 개조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강제되던 때였다. 이 시기 이승만과 박정희 독재정권은 국민의 자발성과 동의를 참칭하기 위해 어용 지식인의 오염된 문필을 빌려 ‘위로부터의 프로파간다 텍스트’를 날조하는 작업에 골몰했다. 그렇게 창안된 새나라 만들기의 전체주의적 문법과 규율이 반공체제의 이념적 보루였던 ‘일민주의’와 멸사봉공의 국가주의 선언문이었던 『국민교육헌장』이었다. 두 텍스트는 ‘저항’과 ‘협력’의 이중구조를 국민의 계몽과 동원에 활용했던 전형적인 국가주의적·전체주의적 교육 담론이었다는 공통성을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해방의 빛을 쏘이기 직전 식민권력의 감시와 처벌 속에서 생을 마감한 세 시인은 새나라 만들기에 필요한 순응적인 국민상(像)을 조형하고 생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존재들이었다. 세 시인의 애국심과 저항정신은 일제의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의해 초래된 비극적 죽음이 그대로 입증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자발성으로 위장된 국가권력에 대한 협력의 담론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 필요성에 의해 한용운의 ‘나룻배’, 이육사의 백마 탄 ‘초인’, 윤동주의 『참회록』 속의 ‘슬픈 사람’은 왜 ‘새나라 만들기’가 국민의 창조적 운명이자 미래인가를 오히려 침묵으로 웅변하는 협력의 기호로 적극 징발되기에 이른다. 이 순간 세 가지의 은유는

‘나의 이웃과 공동체, 국가는 연민과 연대의 ‘기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힘센 외부자에 의해 ‘우리’는 “해 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한용운, 『군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프로파간다의 언어로 강제 편입되기에 이른다. 과거 식민권력에 대한 ‘저항’과 미래 자주국가로의 ‘협력’이라는 시공간적 대립항이 이미 고인이 된 세 시인에게 ‘국민’이란 이름으로 또 새나라 만들기라는 명목으로 요구된 또 다른 미와 이념의 실체였음이 여기서 확인된다.

이제사 밝히건대, 이 글은 북한문학사에서 한용운 시학의 오랜 은폐와 삭제, 불과 25여 년 전 단행된 극적인 복귀와 부활의 과정을 살피기 위해 작성된다. 또한 그것의 핵심적 동력으로서 주체문학론의 개입과 간섭, 이를 활용한 북한의 문학연구자들의 근현대문학사에 대한 수정과 복원의 열정과 의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그런데 왜 비평가는 남한에서 한용운을 위시한 3명의 저항시인에 대한 사후(事後/死後)의 가치화와 국가적·문학사적 재구성을 먼저 언급했는가. 답변은 간단한데, 북한의 권력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 세 시인을 인민의 계몽과 동원에 활용한 흔적이 차고 넘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한용운은 시집 『님의 침묵』(회동서관, 1926)과 장편소설 『홍풍』(『조선일보』, 1935~36)을 중심으로 1986년이 되고서야 가장 늦게 호명되었다. 북한 문단에 뒤늦게 이름을 올린 근대문학 작가들이 대체로 그랬듯이, 만해도 시 자체의 미적 성과와 예술적 가치가 문학적 복권과 평가의 제일 요인은 아니었다. 그 어떤 미와 예술도 압도하는 전제적 국가주의, 다시 말해 그것 자체인 ‘김일성주의’가 한용운을 그것의 권력 지도 작성과 배포에 필요한 문학적 영웅으로 호출하고 현재화했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북한문단은 해방 후 프롤레타리아문학사 및 김일성 중심의 항일혁명문학사 건설에 집중하며 그것의 빈틈을 메꿔줄 진보적 시인으로 김소월과 이상화를 계속 호명했다. 그 문학사 기술의 주체가 한설야, 안함광 등 월북한 ‘프로예맹’ 작가들이었음을 떠올리면, 한용운이 김소월과 이상화 이상의 애국심과 저항의식의 소유자였음을 몰랐을 리 없다. 그들이 한용운 시학의 은폐와 삭제에 동원한 핵심 동력은 역시 “사회적 문제를 취급하는 데서 자기의 사상적

계선을 넘어설 수 없”도록 이끈 ‘불교적 세계관’과 ‘민족주의 사상’의 제약성이었다.⁵⁾ 만해의 종교적 제약성과 관념성을 결정적 흠결이 아니라 아쉬운 약점으로 순화한 결정적 기준과 조건은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 적시된 민족적 ‘유산’과 ‘전통’에 합당하는 사실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 지도의 ‘항일혁명문학’을 제외한 고전과 근대문학을 ‘유산과 전통’이라는 범주 아래 재편하면서 첫째,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작품”, 둘째,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에 기초하여”⁶⁾ 긍정적 측면이 많이 이야기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북한의 현대문학연구자는 한용운 시의 장점과 성취를 “조국과 향토와 겨레들, 그리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애착”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애국심’은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 “자기 고향과 고향 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자기의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에 대한 표현에서 드러난다는 김일성의 교시를 어김없이 붙여 두었다.⁷⁾ 이 장면에서도 ‘김일성주의’와 그 외 모든 것 사이의 서열화와 차별화, 곧 ‘구별 짓기’가 뚜렷이 감지된다. 이 주체사상 우선의 미학적 기준과 판단은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 “민족유산의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모든 우수한 내용을 집대성하고” 있으며, “종래의 유산이 도달할 수 없었던 문학예술의 높은 경지를 개척”⁸⁾했다는 절대적 고평에 근거한 것이다.

김일성주의에 근거한 ‘항일혁명전통문학’과 ‘유산과 전통’으로서 기타 진보문학의 ‘구별 짓기’는 한용운의 시학이 오로지 인민성과 당성 중심의 이념에 의해 재발견·재평가되는 한계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불러올 듯하다. 그런 경향을 완전히 부인하기란 꽤나 어렵다. 그러나 『주체문학론』의 “언어 형상에 문학의 비결이 있다”라는 구절은, 물론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의 자주성”과도 깊이 관련이 있다는 토를 달긴 했어도, 그들이 바라보는

5) 한중모, 『한용운의 문학창작과 <<님>>에 대한 사랑』, 『조선문학』 1996년 제3호(루계 58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67쪽.

6)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노동당출판사, 1992, 84쪽.

7) 리동수, 『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234~235쪽.

8) 김정일, 앞의 책, 62쪽.

한용운의 언어와 형식에 대한 평가의 시선과 기준을 엿보게 하는 일말의 열린 틈이 되어주고 있다. 어쩌면 그토록 작은 열린 틈에서 분단체제를 사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진 ‘남북의 문학적 통합과 정전(正典) 재구성’의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올지도 모른다.

2. 주체문학론, 유산과 전통, 그리고 한용운

1) 북한의 현대조선문학사 · 주체문학론 · 유산과 전통

2000년을 전후한 북한문학사(사)에서 단연 특기할만한 사건은 『현대조선문학선집』(1987~2017) 97권과 『조선문학사』(1991~20000) 15권⁹⁾의 발간이다. 이것들은 이전의 선집 및 문학사와 비교할 때 작품의 선택과 규모, 평가의 방향과 해석에서 말 그대로 유(類)를 달리한다. 첫째, 항일혁명문학 및 주체문학과의 지나친 간극, 김일성 사회주의 체제 및 당 문학과의 이념적·미학적 불협화음 등을 이유로 배제된 박종화, 황석우, 김기진, 임화, 이상, 함형수, 이한직, 박목월 등을 제외하고는 근대시인 거의 모두가 선집에 올랐다.¹⁰⁾ 둘째, 문학사적 평가도 지나친 친일 혐의나 반당파적 정서에 대한 비판을 뺀다면 애국심과 향토애, 인민성과 민족어 등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셋째, 『조선문학사』 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지만 남한에서 배제된 60여 명의 시인과 무명에 가까운 군소시인 100여 명을 발굴하여 문학사의 폭과 창작·향유의 지평을 대폭 넓혔다. 이들에 대한 선택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 및 저항의식, 인민들의 뜨거운 향토애 및 민족적 설

9) 10여 년 지나 류만·최광일의 『조선문학사 16』(사회과학출판사, 2012) 발간되었다. 1990년대 북한 문학의 발전 방향과 방법을 서두에 내세웠지만, 본문은 김일성과 김정숙, 그리고 김정일의 업적을 빛내고 영생을 기원하는 시, 소설, 영화, 극 문학에 대한 소개와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다.

10) 이에 더해 『삼사문학』 동인 신백수, 이시우, 정형웅, 조풍연, 장서인, 『단층』 동인 황순원, 김환민 등도 선집 목록에서 배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진, 『북조선 정전, 그리고 문화정치적 기획 (1) - ‘현대조선문학선집’ 연구 서설』, 『통일인문학』 67,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6 참조.

움에 관한 생생한 묘사에 보이는 ‘진보적 의식’과 ‘현실 연관성’을 높이 산 결과였다.¹¹⁾

불과 10여 년 전의 『조선문학사』 전5권(사회과학원 문학연구실, 1977~1981)과 『조선문학사』 전5권(김일성종합대학, 1982)에서는 거의 엇보이지 않는 텍스트 선택 및 문학사 서술의 전향적 변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남한문학사를 거울로 삼는다면 프로문학과 항일혁명문학 일색으로 구성된 근대문학사의 빈약함에 대한 불안감의 산물은 아닐까. ‘민족’, ‘인민’, ‘항토애’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기성 시인과 무척 생소한 군소시인들에 대한 전면적 선택과 배치는 언뜻 그렇게 읽힌다. 북한문단은 유문선의 말처럼 “문학사 - 시사의 좌우 배분 및 주류 확정의 정치적 균형 감각”을 새로이 연고자 했는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새 조선의 찬란한 문학예술”¹²⁾을 두텁게 함으로써 근대문학의 알팍한 ‘유산과 전통’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묘책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주체문학론’에서 말하는 ‘유산과 전통’은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 인민대중의 사상 감정과 정서”¹³⁾를 담은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작품만을 지시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유산과 전통’의 가치와 범주는 김정일의 다음 교시에 잘 담겨 있다. “민족문화유산을 고전문학유산으로만 보아도 안 되지만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과거의 민족문화유산과 뒤섞어 놓거나 민족문화유산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를 다른 유산과 평균주의적으로 대하여서도 안 된다.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은 민족문화 유산의 핵이며 중추이다”. 이 구절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 어떤 작품도 “당의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 곧 “주체적 문예사상과 이론, 혁명적인 문학예술 경험과 업적, 혁명적인 문화예술 창조의 기풍”을

11) 이상의 『현대조선문학선집』에 대한 정리와 평가는 유문선, 『최근 북한 근대문학사 인식의 변화—『현대조선문학선집(1987~)의 ‘1920~30년대 시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5호, 민족문학사학회, 2007, 422~423쪽.

12) 정홍교·박종원, 『머리말』, 『조선문학개관 I (원시고대~1920년대 전반기)』, 사회과학출판사, 1986, 1쪽. 여기서는 같은 책, 도서출판 인동, 1988, 1쪽 인용.

13) 김정일, 앞의 책, 74쪽.

풍부히 담은 ‘항일혁명문학작품’을 넘어설 수 없음을 뜻한다. 이 ‘구별 짓기’를 김정일은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과 ‘민족문화유산’의 계선(界線)을 뚜렷이 짓는 것이자 전자의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하기 위한 행위로 천명한 바 있다.¹⁴⁾ 그의 주장에는 근대문학상의 비판적 -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은 항일혁명문학의 이념 - 내용 및 언어 - 형식과 결코 대등한 위치를 점유할 수 없다는 것, 만약 그것들이 ‘혁명 전통’으로 주장된다면 수령의 진정한 ‘혁명 전통’을 값아 먹고 먹칠하는 ‘반동적 궤변’에 불과하다는 주체문학 제일주의가 무섭고도 집요하게 숨 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산과 전통’은, 혁명문학의 입장에 선다면 그 외 문학의 인민성과 진보성을 살피고 촉구하는 성찰의 거울이다. 또 민족문화의 입장에 선다면 가장 높은 경지를 개척한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조성과 위대성을 빛내는 자량의 스피커이다.

‘유산과 전통’을 혁명문학 제일주의를 빛내기 위한 방법과 도구로 창안한 것은 1992년 발행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이 처음이다. 문제는 그가 근대문학에서 읽을 만한 ‘유산과 전통’을 앞장서서 호명하고 그 가치까지 서슴없이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김정일은 “일제시기에 진보적인 작품을 창작한 신채호, 한용운, 김억, 김소월, 정지용과 《카프》의 ‘동반자’라 불리운 소설가 심훈, 리효석”¹⁵⁾을 현대 북한의 예술인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 다시 말해 ‘유산과 전통’의 작가로 지명했다. 그것의 가장 구체적이며 감격적인 성과가 그간 북한의 근현대문학사에서 축소, 은폐, 배제되었던 한용운과 정지용을 위시한 핵심적 작가와 작품들에 대한 문학사적 복권과 재평가(『현대조선문학선집』 및 『조선문학사』)였다.

혹자는 『주체문학론』에 앞선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사회과학출판사, 1975)¹⁶⁾과 한중모 · 정성무의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83)의 역할과 가치를 물을 수도 있다. 두 저

14) 이 단락은 김정일, 위의 책, 60~62쪽.

15) 김정일, 위의 책, 83~84쪽.

16) 남한 출간본은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인동, 1989 참조.

서는 첫째, 김일성 단독의 교시 수록, 둘째, 공산주의적 인간학과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대한 강조, 셋째, 문학예술에서의 주체 확립,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의 결합에 대한 주장, 넷째,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결합에 대한 강조, 다섯째, 문학예술작품에서의 종자 탐구와 전형적인 형상적 구현에 대한 강조, 여섯째,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창조자로서 인민대중 및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영도에 대한 강조를 공통적으로 실었다. 마지막으로 항일혁명문학 몇 편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작품도 직접 이름 부르거나 예시하지 않았다.

차이가 있다면 후자에서 ‘사회주의적 문학예술 형태의 새로운 발전’으로서 항일혁명문학의 계승과 주체문예로의 진보가 새롭게 요청되었다는 사실이다. 저자들은 만주 유격전 당시 공연된 가극 『피바다』와 연극 『성황당』을 예로 들며 혁명적 대작과 문학, 영화, 음악, 무용, 미술, 교예 장르에서의 ‘속도전’과 균중적 개량 및 발전을 주장했던 것이다.¹⁷⁾ 이 과정에서 특히 문학작품의 경우, 깊이 있고 분석적인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 작가들이 형용어, 은유, 직유, 의인법, 완곡 및 과장법, 어순바꿈법, 되풀이법, 대구법 등을 널리 사용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등의 과제가 요구되었다.¹⁸⁾ 이 수사법과 문체들은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 ‘5. 생활과 형상’으로 확장·심화되어 “구성이 좋아야 작품이 산다”, “언어 형상에 문학의 비결이 있다”라는 명제의 구성물로 거듭난다.

2) 한용운 시의 재발견, 애국주의와 인민적 사랑의 면면

만해 한용운이 북한의 ‘현대조선문학사’에 그 첫 모습을 드러낸 때는, 시(시조와 한시 포함)로만 한정한다면 북한 최고의 문학연구자였던 정홍교·박종원이 1986년 사회과학출판사에서 펴낸 『조선문학개관 I』이었다.¹⁹⁾ 여

17) 전자에서는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 피는 처녀』가 김일성이 창작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지칭되고 동시에 북한의 사회주의 문학예술이 영원히 따라 배워야 할 ‘불멸의 본보기’로 주장되었을 따름이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위의 책, 46쪽).

18)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391쪽.

기서는 “민족적 비애와 울분이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것”의 예로 시집 『님의 침묵』과 표제작 『님의 침묵』이 소개되었다. 그 선택의 조건은 “우리 인민이 부른 노래에 민족의 슬픔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김일성의 교시를 만족한다는 바로 그 점이었다. 과연 『님의 침묵』은 “나라 잃은 슬픔과 자유와 독립에 대한 지향을 가진 님에 대한 리별의 서러움과 다시 만나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만해가 만세운동 및 반일독립운동에 참여한 ‘애국적인 시인’이자 『불교대전』 등을 저술한 개혁적인 ‘불교승려’였다는 것도 “반일애국문학의 창조발전”이라는 항목의 첫 예시자로 오르기엔 충분한 조건이었다. 비록 그의 시는 “애상적인 색조와 불교적 요소를 가진 제한성”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인민들의 민족적 비애와 나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진실하게 반영한 ‘애국주의적인 문학’이라는 사실이 긍정적인 재평가의 주요한 요소로 작동했다.²⁰⁾ 이러한 장점은 민족문화의 ‘유산과 전통’에 요구된 “인민의 소유물”이자 “민족의 귀중한 재부”²¹⁾라는 핵심적 가치와도 썩 잘 어울렸다.

그런데 만해의 첫 등장이 1996년 ‘한용운론’의 집필자가 되는 한중모 외 1인의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1983)와 김정일의 『주체문학론』(1992)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여간 심상치 않은 일이다. 두 책에서 유난히 강조된 사실의 하나는 과거의 낡은 사회에서 창조된 민족문화예술은 그 본질적인 약점과 제한성 때문에 노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작업에서 비판적으로 계승되어 마땅하다는 김일성의 교시였다. 이것은 한용운 문학의 애국심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충만할 지라도, 혁명적 예술문학의 ‘순결성’을 더욱 빛내고 뒷받침하는 부차적 역할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제한적 평가의 조건 자체였다. 주체문학론의 입장에서 불교의 관념성과 ‘님’의 애상적 정

19) 북한에서 한용운 문학의 재발견 과정, 그의 문학작품 및 해설·평가가 수록된 저서와 논문의 현황에 대해서는 유문선, 『북한에서의 만해 한용운 문학 연구』(『어문연구』 34권 2호, 한국어문교육학회, 2016)가 유익하다.

20) 이상의 직접 인용은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 I』, 사회과학출판사, 1986, 340~342쪽.

21) 김정일, 앞의 책, 84쪽.

조가 그의 등장과 평가 초기에 결정적 한계로 계속 언급된 사실도 이와 깊이 관련된다. 결국 이런 정황은, 항일혁명문학에 대해 프로문학이 그랬던 것처럼 한용운의 문학을 다음과 같은 위상과 역할로 고정시키게 된다. 만해의 시는 과거화, 곧 ‘유산과 전통’이 됨으로써 진보적 현재성과 예술성을 보장받고 또 혁명문학의 그늘 아래 편입됨으로써 미래의 건설에 참여하는 긍정적 역사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²²⁾

북한에서 한용운 시학의 진정한 재발견과 미학적 복권은 ‘문학의 대중화’, 바꿔 말해 ‘문학작품보급사업’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성립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김정일의 교시처럼, 인민의 혁명적 세계관의 확립과 제고, 풍부한 문화적 소양과 고상한 도덕 품성을 갖춘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의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 전반의 주체사상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기대되었다. 그래서라도 한용운에 대한 ‘문학적 대중화’의 실현은 주체사상의 이념과 미학에 투철한 전문가의 해석과 평가, 그것에 토대한 정전(正典)급 작품의 선집(選集)에 대한 선택과 등재라는 이중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 북한문단에서 이 역할을 담당할 서책을 지목하려면, 이후 3장에서 살펴볼 리동수의 전문적 연구서 『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문학 연구』(1988)와 류희정 편, 리동수 해설의 『현대조선문학선집 13-1920년대 시선 (1)』(1991)이 첫손에 손꼽힌다. 실제 작품의 선택과 평가에 대한 동시적인 진행은 『주체문학론』(1992)의 ‘유산과 전통’의 진보성의 요구와 혁명문학적 전통에 대한 강조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암시하는 구체적 증빙물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용운과 그의 시가 문예 관련 ‘소사전’이자 대중용 독물(讀物)인 『문예상식』의 한 항목으로 등장한 때는 앞의 저서들이 소개된 지 10년을 훨씬 지난 1994년의 일이었다. 이 글도 다른 글처럼 만해를 ‘애국적 신념’과 ‘견결한 의지’를 굳게 갖춘 독립운동가와 저항시인으로 소개한다. 『님의 침묵』과 장편소설 『흑풍』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도 다른 글들과 공

22) 참고, 『북한의 1927~1945년의 ‘현대’시사 서술-프로시의 위상과 가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소 남북한문화사연구반,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359쪽. 이 책은 1990년대 판 『조선문학사』 전15권을 앞선 시기 북한의 다른 문학사와 역사주의적 관점과 방법으로 비교한 것으로 북한의 문학사적 관점과 태도, 해석과 평가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에 유익하다.

통적인데, 여기서는 전자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먼저 살펴본다.

이 시는 가신 님에 대한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님과 리별한 애달픔과 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넘친다. 여기에서 가신 님은 소월의 시에 나오는 가신 님과 같이 잃어진 조국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월의 시가 님을 잃은 슬픔과 울분을 토로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 이 시에는 님과 다시 만날 미래에 대한 신념과 님을 기어이 만나고야 말 의지가 뚜렷이 표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강렬한 열정과 힘이 느껴진다. 이러한 정서는 조국광복의 그날을 굳게 믿고 지조를 지켜가며 곳곳이 살아나가는 시인 자신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²³⁾

‘님’을 오로지 “조국의 의미”로 수렴하고 해석하는 태도는 한용운 시학에서 불교적 색채를 열게 함과 동시에 민족의 자주성에 복무하는 ‘애국주의’를 강조하려 한다는 주체문학의 관점과 깊이 연관된다. 그렇지만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님’에 대한 사랑을 모든 ‘기된 것’에 대한 그리움과 연대로 파악하는 대신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으로 치환된 “조국광복”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좁혀버린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국의 비평가 김우창은 한용운의 자이를 “어떤 적극적인 내용보다도 불의에 대한 저항, 잡히지 않는 진리에 대한 갈구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²⁴⁾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일제의 폭력적 식민주의에 대한 만해의 저항은 ‘불의’에 대한 거부이자 ‘조국광복’의 열망으로 얼마든지 해석되고 동의될 수 있다. 이곳이야말로 남북한 문학사에서 한용운 미학의 접점이 형성되는 최적의 장소이자 그 공유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문학적 희망의 문턱이 자리한 공간에 해당된다.

그러나 북한문단은 만해의 님에서 ‘잡히지 않는 진리’의 측면을 소거함으로써 이별의 애달픔과 님에 대한 그리움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에 대한 열망과 충동을 제외시켰다. 대신 한용운이 토해 낸 보편적인 이별과 그리움의 감정을 오로지 ‘조국광복’에 종속시킴으로써 ‘님’을 김일성식 “인간생

23) 『문예상식』,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161~162쪽.

24) 김우창, 『일제하 작가의 상황』,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30쪽.

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 속에 가뒀버렸다. 그 세계는 혁명투쟁을 통해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인민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끄는 것만을 참된 애국과 해방의 길로 인정한다.²⁵⁾ 이러한 주체사상의 열망이 허위적 공상(空想)의 국면을 넘어서지 못했음은 한용운 시의 해석과 평가가 혁명적 정치와 예술의 첨예한 결합체로만 지향되는 글의 성격에서 뚜렷이 감지된다. 마치 수령 찬양의 집체극²⁶⁾에 참여한 인민들이 그러하듯이, ‘한용운론’의 집필자들도 주체사상에 영도되는 인민국가, 바꿔 말해 수령의 메시지를 글쓴이 자신의 몸짓과 목소리로 일체화하는 ‘극장국가’식 언어와 표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주체문학론’에 밀착하는 한용운 문학을 새롭게 발명하기 위해 거기 요구되는 ‘집단적 사회적 형태’를 구성하고 ‘집단적 합일성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잘 훈련된 ‘공연노동자’에 비유될 수 있다.²⁷⁾

한용운 문학의 해석과 평가에서 주체문학론의 영향과 간섭, 아니 그 지침과 규율의 실천이 가장 뚜렷한 비평문을 찾는다면, 북한 글지의 문학잡지 『조선문학』 1996년 제3호에 실린 한중모의 『한용운의 문학창작과 <님>에 대한 사랑』²⁸⁾을 단연 앞세워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김정일 『주체문학론』(1992)의 기반이 되었을 법한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1983)를 공동 집필한 인물이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그는 만해 문학의 핵심을 ‘님’에 대한 ‘사랑’에서 발견했으며, 인민대중에 대한 그것의 진정한 역할을 조국(‘수령’)으로 해석해도 무방함을 위한 애국심의 양양과 희생정신의 발현에 두었다.

흥미롭게도 한중모는 『님의 침묵』에 대한 해석과 평가로 곧바로 나아가지 않았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주체문학론의 관점과 규율을 적시한 후 『유심』 창간호의 『심(心)』(1918)과 옥중시 『무궁화를 심고저』(1922)의 가치를

25) 한중모·정성무, 앞의 책, 29~30쪽.

26) 항일혁명운동을 재현한 『피바다』(가극)와 『성황당』(연극)은 주체문예의 이상적 모델이었다. 또한 『피바다』와 『꽃 피는 처녀』(가극, 영화)는 집체극 <아리랑>의 핵심적 스펙터클로 동원되었다.

27) 권현의·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창비, 2013, 105~106쪽.

28) 한중모, 『한용운의 문학창작과 <님>에 대한 사랑』, 『조선문학』 1996년 제3호(루계 581), 문학에숄종합출판사, 1996, 62~67쪽.

먼저 따졌다. 이것들은 『님의 침묵』(1926)에 수록되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두 작품이 『님의 침묵』 출간 이전 만해의 “진보적인 성격과 애국주의적인 특성”, 특히 민족의 자주성과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을 입증하기 위해 선택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는 서두에 일제 식민통치기 조선문학이 민족문화유산의 풍부화에 기여한 바를 적어두었다. 그 내용은 한용운 시에 붙여진 긍정적인 평가와 민족적 가치에 대한 상찬에 다를 바 없었다. “조국광복과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군세게 살며 싸우는 인민들의 사상 감정과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특색 있는 작품”이라는 명제가 그것이다.

한중모는 이 관점을 1930년대 한용운 문학에도 적용하기 위해 치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 선택된 작품은 뜻밖에도 자유시 「산거(山居)」(1936)를 제외하면 시조 「우리 님」(1935)과 「추야몽(秋夜夢)」, 「무제(無題)」²⁹⁾였다. 세 편의 시조는 무엇보다 일제 치하에서 “전통적인 민족시가형식을 살려나 가려는 문학정신”의 실천으로 고평되었다. 또한 거기 보이는 ‘님’들은 “가장 숭고한 존재이고 심원한 세계”였기에 ‘나’의 가장 사랑하고 사무치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한중모 역시 『문예상식』 ‘한용운’ 항목의 필자가 그랬듯이 ‘님’을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형상적으로 암시”함과 동시에 “조국을 광복하기 위하여서는 무력항쟁을 벌려야 한다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천명”하는 존재로 규정했다. 판에 박힌 듯한 ‘님’의 해석, 곧 ‘애국심’과 ‘조국광복’을 뜻한다는 관습화된 상징적 해석은 ‘유산과 전통’에서 강조된 명제에 대한 맹종적 실천으로 읽힌다.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의 계승과 발전, “민족문화예술유산”에 대한 주체적 입장에서의 평가가 그것으로, 이것은 『님의 침묵』에 대한 평가의 원리이자 규율이기도 했다.

- 1) 시집 『님의 침묵』에서 ‘님’과 ‘나’는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나’에게 있어서 ‘님’은 오매에도 잊지 못하고 목마르게 그리워하며 모든 것을 다 바쳐

29) 「추야몽」과 「무제」의 창작연도는 한계전 편, 『한용운의 님의 침묵』, 서울대출판부, 1996 및 권영민 편, 『한용운문학전집 1-님의 침묵 외』, 태학사, 2011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지면에 발표된 시조들이 주로 1930년대에 창작된 것을 감안하면 같은 시기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한편으로 ‘님’은 ‘나’에게 존재의 의미와 생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근원이며 삶의 보금자리이다. 여기에 ‘님’과 ‘나의 뿔래야 뿔 수 없고 가를래야 가를 수 없는 관계가 있다.

- 2) ‘당신’-‘님’에 대한 복종을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더 달게 여기며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나의 깨끗한 마음은 서정적 주인공이 지닌 열렬한 조국에 대한 시적 표현이다. ‘당신’-‘님’에 대한 ‘나의 복종심은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복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여기에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서정적 주인공의 굳센 지조가 있다. 시는 자유와 복종을 대치시켜 ‘님’에의 복종을 자유보다 더 높이 내세움으로써 조국밖에는 다른 것을 모르는 서정적 주인공의 순결한 애국심을 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1)은 남한의 ‘님’에 대한 해석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앞서 말했던 김우창의 “잡히지 않는 진리에 대한 갈구”와도 통하며, 현실부정적 일탈이나 안이한 긍정의 추구를 모두 거부한 채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실천적 노력을 통해 “진정한 역사 안에서 자신과 만나게 하려는 깨달음의 획득”³⁰⁾을 드러낸 것이라는 김홍규의 해석과도 그런 대로 연결된다. 하지만 한중모는 그 밖의 미학적·철학적·종교적 해석과 평가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대신 “‘님’이 가지는 기본적인 시적 의미는 조국”이라는 프로파간다의 문장으로 급작스레 말머리를 돌려버린다. 2)는 『복종』에 붙여진 해설이다. ‘님’의 최고 의미로 ‘조국’이 선택된 만큼 ‘나의 ‘님’에 대한 ‘복종’은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움, 그 감정의 순결함과 열렬함으로 한 점 회의도 없이 수렴되어 하등 이상할 것 없어진다.

두 인용문을 포괄할 수 있는 ‘주체문예론’의 규범을 하나 가져온다면 “정치성, 사상성, 혁명성과 예술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문학예술만이 우리 시대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는 참다운 문학예술”³¹⁾이라는 문장이 가

30) 김홍규, 『님의 소개와 진정한 역사』,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비평사, 1980, 37쪽.

31) 한중모·정성무, 앞의 책, 344쪽.

장 적합할 듯하다. 이 명제와 한용운의 시를 결합시키기 위해 한중모는 「님의 침묵」, 「당신이 아니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복종」, 「가지 마세요」, 「나의 길」, 「하나가 되어주세요」 등의 대표작을 정성들여 끌어들었다. 그는 이 시들에서 ‘순결한 애국심’과 ‘조국광복의 염원’,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희생정신’으로 충만한 혁명전사, 다시 말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읽어냈다. 이 시들은 혁명적 문학예술의 건설에 기여하는 ‘유산과 전통’의 모범적 사례로 창안 또는 날조되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직 수령 중심의 과시의 정치만이 용납되고 선전되는 ‘현대적 극장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랑의 힘’(애국심)과 ‘충의 힘’(조국광복), 그리고 ‘고난의 행군’과 ‘공존의 윤리’(희생정신)³²⁾를 체현한 유격대적 인간형의 진지로 재구성되는 정치·미학적 사건이 그것이다.

한중모의 ‘한용운론’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시적 ‘유산과 전통’을 살리고 권장하는 방법이다. 그는 먼저 한용운 시의 제한적 요소를 ‘사랑의 노래라는 형식’, ‘시 형상의 전반적인 상징적 의미’, ‘불교적 세계관’과 ‘민족주의 사상’의 과다, 그에 따른 종교적 색채의 강화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약점의 노출에서 찾았다.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힘 있는 방법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교시나 지도를 들어 그 약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해결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예컨대 김정일의 교시 “우리 말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언어의 기능을 독창적으로 발전시키는 빛나는 본보기” 운운이 여기에 해당된다.³³⁾ 그러나 한중모는 그것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형식과 언어의 요소를 강조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먼저 그는 만해의 시에 가해진 신비주의적·애상적·감상적이라는 비판을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그러면서 ‘고유한 민족어의 능숙한 구사’와 ‘그윽하고 은근한 정서’와 같은 형식적·감각적 장점을 내세워 한용운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되찾으려는 념원과 의지”를 더욱 높이 사는 문학사적 평가를

32) 수령 제일의 북한 체제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권현익·정병호, 앞의 책에 나오는 각 장과 절의 핵심적 제목 몇몇을 가져왔다.

33) 김정일, 앞의 책, 213쪽. 이 절의 제목이 “6) 언어형상에 문학의 비결이 있다”이다.

앞세웠다.

민족어와 내면적 감각의 탁월한 구사는 누가 보더라도 한용운 시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므로 그것의 강조를 통한 ‘애국주의’의 계몽과 전파는 정해진 선택이자 수순에 가깝다. 그런데 ‘신비주의적이지 않다’라는 언급을 빼놓고는 만해 시의 결정적 한계로 끊임없이 지목되던 불교적 색채에 대한 시인의 전환과 구제의 노력은 눈에 띠지 않는다. 하지만 ‘종교적 색채’에 뒤따르게 마련인 ‘신비주의적’인 정황과 감각에 대한 부정은 북한의 종교, 특히 불교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전환과 연관될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기에 충분한 요소다.

1973년판 『조선문화어사전』(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 따르면, 불교는 첫째, ‘극락세계’를 미기로 노예적인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하는 반동성 넘치는 종교이며, 둘째, 우리 역사에서도 봉건지배계급의 사상적 지배 도구로 이용되면서 인민대중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과학발전에 해독을 끼친 이편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물론 동일한 이름의 사전은 아니지만 1992년판 『조선말대사전 (1)』(사회과학출판사)에 오면 그 설명과 평가가 놀랄 만큼 달라진다. 사전 편찬자는 불교의 발생과 전파 과정을 간단히 밝힌 뒤 다음의 문장을 더하고 있다. “‘불타(부처)’는 범어로 ‘진리를 깨달은 자’ 또는 ‘슬기 있는 자’ 라는 뜻이다. ‘인간을 고뇌에서 해방’하며 자비심을 베푸는 것을 리념으로 하고 속세를 떠나 도를 잘 닦으면 ‘극락세계’에 이른다고 설교한다.”³⁴⁾ 이와 같은 변화는 불교가 만해 문학에 미친 영향을 부정적인 것에서 중립적이거나 이중적인 것으로 이행시키고 있음을 뚜렷이 확인시킨다.³⁵⁾ 물론 그 실질적 변화는 ‘님’에 대한 해석이 애국심과 조국광복의 상징으로 고정되기를 그치고 ‘잡히지 않는 진리’를 좇는 자로까지 넓혀질 때야 추인될 수 있을 것이다.

34)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제1권, 사회과학출판사, 1992, 1509쪽.

35) 유문선, 앞의 논문, 203~204쪽. 그는 1981년판 『현대조선말사전(제2판)』과 2004년판 『조선말사전』까지 확인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계기 및 변화를 확인했다. 연구자도 가장 근래 출간된 2017년판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2』(사회과학출판사)를 살펴보았다. 1992년판 『조선말대사전 (1)』의 내용과 변함없었다.

적어도 현재까지 한용운 문학은 북한에서 애국주의와 조국광복의 열망, 저항정신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듯하다. 물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만해의 사상과 문학은 이후 확인되겠지만 ‘선군사상’과 ‘선국혁명문학’의 관점과 시각이 더해지는 변화가 감지된다. 그런데 새로운 세기를 전후한 시기는 2000년 6월 김대중 정권의 북한 방문이 시사하듯이 남북의 화해 및 상호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던 때이다. 이러한 시대사적 흐름에 발맞춰 북한 당국은 외세의 배격 및 ‘7천만 겨레’의 ‘전민족대단결’을 통한 ‘조국통일’의 추구를 대내외에 호소했다. 한용운은 “현대 시문학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애국과 민족적 양심을 소중히 간직하고 독립운동에 흔적을 남”³⁶⁾였다는 점에서 ‘선군사상’ 운운하지 않고도 북한 주도의 통일운동에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였다.

흥미로운 것은 대내외 선전의 『금수강산』에 실린 ‘한용운론’에 비견되는 작가론이 7년 뒤 『통일문학』(2000년 3호)에도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잡지는 말미에 새하얀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토”라는 문구가 적힌 흰 수건을 들고 ‘통일춤’을 추는 젊은 여성의 모습 아래 “조선은 하나다”를 구호를 배치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 소설, 비평 등이 남북한 작가의 이름으로 실렸다. 2000년 당시 한참 무르익어가던 ‘남북작가회의’에 대한 열망 및 그를 통한 ‘통일문학’의 확장 욕구가 충실히 반영돼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이다. 이곳에 실린 ‘탁진(남조선)’의 『한용운의 시와 <님>』은 북한에서 언급되지 않는 『생명』, 『금강산』,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계월향에게』, 『사랑의 불』, 『명상』 등을 제목으로나마 소개하고 있다. 북한 문단과 독자들에게 한용운 시의 지평을 더욱 넓은 공적을 이뤘다는 평가가 가능한 지점이다. 그러나 최후에 강조된 항목은 역시 “진리나 정의에 대해 말할 때도 조국광복의 진리나 정의보다 더한 초미의 과제는 없”³⁷⁾다는

36) 리장성, 『<님의 침묵>과 한용운』, 『금수강산』 1993년 6호(루계 제47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1993, 50~51쪽.

37) 탁진, 『한용운의 시와 <님>』, 『통일문학』 2000년 3호(루계 46호), 평양출판사, 2000, 224~238쪽. 글 중에 『만해시 연구의 방향』(『현대문학』 1984년 7월호 일부가 인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린 평론을 찾아본다면 필자 ‘탁진’의 본명도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선군시대’를 넘어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통치’ 아래 김정운의 지도력이 점차 강화되는 오늘날 북한의 인민대중에게 한용운이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자. 2019년 시인 로경철은 『옛 시인에게 -만해 한용운을 생각하며』라는 추모시를 발표했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을 《님》”으로 부르며 독립투쟁을 전개한 만해의 공적을 높이 산다. 그런 뒤 “《님의 침묵》으로 울던 시인이여/하늘땅에 울리는 노래를 들으라/민족의 태양이 밝게 비치여/다시는 시인들이 울지 않으리라/존엄과 영광의 노래 무궁토록 울려퍼지리라”라고 시를 끝맺음했다. 역시 한용운 호명의 핵심은 그의 저항문학이나 독립운동 자체³⁸⁾가 아니라 ‘김일성제일주의’와의 연관성이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일이 『주체문학론』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항일혁명문학과 존중해 마땅한 ‘유산과 전통’으로서 애국적 진보문학 사이의 계선이 얼마나 강고한 지형물로 존재하는지를, 또 전자와 후자의 서열화와 체계화가 북한사회에서 어떻게 보편화되었는지를 새삼 엿보게 하는 지점이다. 이런 정황은 남북한 문단 및 연구자의 통일문학사에 대한 동의와 갈등이 적어도 한용운 문학에 대해서는 작품 자체보다는 그것의 이념적 해석과 평가에서 벌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3. 한용운 시, 혁명적 애국주의와 인민적 서정성

북한문단에서 대중용 작품집이나 문학잡지는 주체문예론에 기초한 당 문학의 검열과 승인을 거친 뒤에야 출간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예의 『문예상식』(1994)과 『조선문학』(1996)에 보이는 한용운의 작품과 평가도 그 과정을 거친 작품집과 문학사에 토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 기초자료가 류희정 편 『현대조선문학선집 13-1920년대 시선 (1)』(1991)과

38) 『문학신문』 2006년 6월 17일자에는 한용운의 한시 「안중근」이 리규찬의 번역으로 실렸다.

『현대조선문학선집 26-1930년대 시선 (1)』(2004)이며, 류만·리동수의 『조선문학사 7』(2000)과 류만의 『조선문학사 9』(1995)이다. 그런데 시선집과 문학사의 출간 시점이 어딘가 이상해 보인다. 보통은 작품집→문학사 또는 문학사→작품집의 순서로 정렬될 법하다. 1920년대는 작품집→문학사의 순서를 지켰지만, 그러나 문학사의 경우 1930년대 것보다 늦다. 1930년대는 문학사가 작품집보다 10여 년 앞서 출간되었다. 이 때문에 한용운 시선집은 1920년대→1930년대 순서대로 13년, 문학사는 1930년대→1920년대로 거꾸로 올라가는 5년의 시간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작품집과 문학사 서술의 혼돈은 수록 작가와 작품들에 대한 공통적 선택과 집단적 총화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1920~30년대 작품집과 문학사 출간의 혼돈이 유난히 두드러지는 까닭은 두 가지 정도로 추측된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면, 유문선이 날카롭게 지적한 사실, 곧 『현대조선문학선집』과 『조선문학사』는 작가와 작품 선정, 작품 논의 등에서 서로 아주 닮은꼴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한결 더해질 것이다.³⁹⁾

첫째, 항일혁명문학과 카프문학을 빼면, 비판적 사실주의와 민족주의 문학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문학”이다. 1930년대 『조선문학사』가 1995년, 작품집이 2004년에 출간되었다는 것은 전자의 기준 아래 그것에 합당한 기존 작가의 재평가와 새로운 작품의 발굴에 적잖은 시간이 걸렸음을 뜻할 법하다. 실제로 김일성은 근대문학의 ‘유산과 전통’으로 1910년대~1920년대 문학예술작품의 발굴과 평가를 무엇보다 강조했는데, 이것은 1930년대 문학의 선택과 배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규준이었다.

둘째, 1920년대 문학을 다룬 『조선문학사 7』(2000)은 ① “일제 식민통치하의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애국독립에 대한 지향을 반영한 문학”, ② “무산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초기 프로레타리아문학”, ③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 선생님과 강반석 녀사의 혁명시가” 순으로 조선문학 발전의 순

39) 유문선, 「최근 북한 근대문학사 인식의 변화-『현대조선문학선집(1987~)』의 ‘1920~30년대 시선’을 중심으로」, 430쪽.

서와 계선을 설정했다. 그랬다, 이 문학사와 『현대조선문학선집-1920년대 시선』(1)~(3) 사이에 걸린 출간 10여 년 편차의 비밀은 ③에 걸려 있었다. ‘혁명문학예술’의 기원과 확장으로서 김형직과 강반석의 노래를 모아놓은 최치영·박건천 편, 『현대조선문학선집-혁명시가집』이 2002년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조선문학사 7』은 이미 수집과 복원이 끝난 ‘혁명시가’들을 대량 확보함으로써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 교시된 비판적 사실주의→사회주의적 사실주의→주체적 사실주의 3단계론의 발전 경향을 완결 짓기에 이른다.⁴⁰⁾

이상의 작품집과 문학사의 관계로 본다면, 한용운 문학에서의 그것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엄밀히 말해 한용운의 선택과 평가는 여타의 작가에 대한 재평가와 무명시인의 발굴, ‘혁명시가’의 복원과 절대화에 큰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 『님의 침묵』이 집중적으로 실린 『현대조선문학선집-1920년대 시선(1)』이 발간되기 3년 전인 1988년에, 그것도 『조선문학사 7』의 공동 저자인 리동수에 의해 북한문단 최고의 ‘한용운론’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⁴¹⁾ 둘째, 『현대조선문학선집-1930년대 시선(1)』(2004)에서 한용운 시는 1930년대 창작된 자유시와 시조를 합해 21편이 실렸다. 그 가운데 선집 말미의 해설과 『조선문학사 9』 등에서 ‘애국주의’와 ‘한글 제일주의’를 기준으로 서너 편의 시가 평가되었을 따름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조선문학사 9』에서 한용운 문학의 주인공은 소설 『흑풍』이었다. 여타의 『흑풍』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상에 공명하는 내용”⁴²⁾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고평의 이유였다. 물론 그 수준은 한 사회주의자가 지주와 소작농의 계급적 대립을 폭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정도였다.

이상의 텍스트 및 비평적 정황을 근거로 한용운 선집과 관련 문학사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 『현대조선문학선집 13-1920년대 시선(1)』에는 신채호, 한용운, 주요한, 이광수 순으로 실렸다. 앞의 둘은 애국심과 저항정신을,

40) 유문선, 「북한에서의 만해 한용운 문학 연구」, 200쪽.

41) 앞서 언급한 리동수의 『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가 그것이다.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비판적 사실주의자로 소설에서는 나도향과 현진건의, 시에서는 한용운과 김소월을 지목했다.

42) 『문예상식』, 162쪽.

뒤의 둘은 근대시 성립과 민족주의 확장을 높이 산 결과로 그 순서가 잡혔다. 만해의 시는 총 41편이 실렸다. 총88편의 『님의 침묵』(1926)에서 35편, 『황매천』, 『락일』 등 1918년 이전의 시 5편, 그리고 『무궁화를 심으고저』(1922)가 선택되었다. 『님의 침묵』은 흔히 불교의 인연설에 따라 이별에서 슬픔(고통)으로, 다시 희망에서 만남의 기대 순으로, 다시 말해 “이별은 미의 창조”(『이별은 미의 창조』)라는 시구처럼 희망의 원리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문단은 이와 달리 시대 순으로 배열하며 저항의식과 애국심, 광복에 대한 열망을 한용운 시의 핵심으로 밀어 올렸다.

- 1) 시인의 반일애국정신과 저항의식은 직선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님》에 대한 한 너인의련정 세계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깊이 있게 제시되고 있다. 사랑과 리별을 상징하여 서정을 깊이 있게 읊조린 바로 여기에 만해 한용운의 시창작이 가지는 개성적인 특성이 있다. 그의 모든 시에 관통되고 있는 《님》은 시인의 심장에 새겨진 그리운 모든 것, 조국과 향토와 겨레, 자유와 행복을 포괄하는 그렇듯 크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의미하였다.⁴³⁾
- 2) 그의 리상과 념원은 가난하고 불쌍한 인민들과 그들을 따듯이 품어줄 요람-조국의 품에 대한 끝없는 동정과 사랑이었다. 시 《님의 침묵》은 이런 의미에서 겨레에 대한 뜨거운 동정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된 사랑과 믿음의 시이며 시인의 애국애족의 념을 불태워 응결시킨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⁴⁾

두 글은 리동수의 것으로 3년의 시간차를 가진다. 두 글의 핵심어 반일에

43) 리동수, 『1920년대 시문학사조와 다채로운 시형상』, 류희정 편, 『현대조선문학선집 13-1920년대 시선 (1)』, 문예출판사, 1991, 23쪽.

44) 리동수, 『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 267쪽.

국과 저항의식, 겨레에 대한 동정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이후 한용운 시 읽기와 해석의 토대로 굳건히 자리했음은 『문예상식』과 『조선문학』의 한용운론을 다시 짚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해 시에 대한 이런 평가는 10년 뒤에 발간된 『조선문학사 7』(2000)에서도 지속, 반복되고 있다. 이 책이 류만·이동수의 공동 집필로 되어 있지만, 평가와 해석의 방법 및 언어를 비교해보면 문학사의 한용운론은 이동수의 것임이 거의 확실해진다. 예컨대 참다운 애국의 순정과 정신, 짓밟힌 겨레의 삶과 빼앗긴 조국과 향토에 대한 뜨거운 동정과 열렬한 사랑, 조국과 겨레의 상징적 의미로서 《님》이라는 평가의 언어와 그것을 서술하고 가치화하는 어투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⁴⁵⁾

사실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한용운론이 반갑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뜩찮기도 하다. 그들은 《님의 침묵》을 관통하는 사랑의 뜨거움과 열정을 ‘애국의 순정의 시적 일반화’로 명명했지만, 그럴수록 ‘님’은 원래의 ‘그런 것’에 담긴 (유약한)타자들에 대한 연민과 연대의 감각,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진리에 대한 가없는 열망과 그리움은 가뭇없이 은폐되거나 삭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제의 협소화는 주체문학론에서 강조된 ‘언어형상의 힘’을 뛰어넘어 더욱 자율적이며 세련된 형식으로 북한문학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한용운 시학의 역할과 가능성을 마찬가지로 제약하게 된다.

- 1) 한용운의 시는 뜻이 깊고 풍부하며 상징적 형상으로 일색되어 이채를 띠고 있다. 또한 시적 론저가 강하고 구성적으로 짜여 있으며 시줄들이 산문체 형식으로 길게 전개되지만 시줄과 구절마다 룰조가 있고 운율적 형식미가 보장되어 시가 부드럽고 순탄하게 흐른다. 한용운은 1920년대 우리나라 진보적 시가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의 한사람으로서 현대 자유시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⁴⁶⁾

- 2) 시는 짧고 간단하면서도 뜻이 깊고 풍부하며 형상이 독특하고 부드럽고 류창

45) 류만·이동수, 『조선문학사 7』,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100~101쪽.

46) 이동수, 「1920년대 시문학사조와 다채로운 시형상」, 25쪽.

한 것으로 하여 깊은 인상과 여운을 남긴다. 시는 우선 감정 정서 조직에서 논리적 순차성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산만하지 않고 구성적으로 짜여 있으며 따라서 시상이 줄기차게 한곳으로 지향되면서 시의 절정을 뚜렷이 장식해준다. 이것은 그의 모든 시가 그러한 바와 같이 대조적인 구성 수법에 의하여 더욱 힘 있게 부각된다.⁴⁷⁾

북한에서 한용운 시의 형식 미학은 두 글의 필자 리동수에 의해 가장 정확하고 세련된 분석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어쩌면 누군가는 리동수의 글이 김일성이 교시한바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 당적이며 노동계급적인 견지에서 문체제기와 해명, 인민 지향의 쉬운 말을 통한 심오한 뜻의 표현 등에 근거한 것⁴⁸⁾으로 평가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런 전제 없이도 인용문은 한용운 시학의 미학적 특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시적 형식 및 정서를 동시에 파악케 하는 힘과 보편성이 있다. 다시 말해, 남한의 논고에 비해 세련미는 부족하지만, 언어와 형식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 텍스트의 구조 원리를 풍부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한용운 시의 형식에 대한 평가가 10여 년 뒤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조선문학사 7』은 만해 시를 “사상 정서적 내용에서나 시형상적 측면에서 새롭고 독특한 것으로 하여 우리나라 시문학의 애국주의적 전통을 살리며 자유시의 영역을 다채롭게 하는 데서 특색 있는 기여”⁴⁹⁾를 했다고 평가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문장은 모순적이다. 정형물의 타파, 다시 말해 자유시 - 내재율로의 해방은 단지 형식의 자율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 최종 목표는 중세의 전제적 이념과 고착된 사상의 파괴함으로써 우리들 내면의 자유와 해방의 시간을 성취하는 데 있었다. 그렇지만 북한 문단은 자유시를 오로지 당파성과 인민성에 기초한 애국주의에 대한 계몽적 매체와 표현물로 간주함과 동시에 그것만을 자유시의 참된 가치로 삼았다. 이

47) 리동수, 『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 267쪽.

48) 김정일, 앞의 책, 220쪽.

49) 류만·리동수, 앞의 책, 104쪽. 인용문은 신채호를 지시한 문장, 곧 “애국의 정을 특색 있게 일반화하고 현대자유시의 개척 발전에 이바지한 의의 있는 작품”으로도 표현될 수도 있다.

런 방식의 ‘유산과 전통’으로서 한용운 시의 문학사적 선택과 선집의 등재는 비유컨대 ‘전사자 숭배’에 근접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이해된다. “죽어서도 애국적 사명을 이어나가리라는 믿음”을 통해 “죽음 이전의 삶”⁵⁰⁾ 전체를 오로지 사회주의 혁명과 주체의 조국 건설에 바치겠다는 감화와 실천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가 그것이다.

류희정이 편한 『현대조선문학선집 26-1930년대 시선 (1)』(2004)의 한용운 편은 예의 ‘애국주의적 전통’에 얽힌 정황을 충실히 환기한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10여 년 앞서 출간된 『조선문학사 9』(1995)에 소개된 한용운 시와 그 평가를 먼저 펼쳐보아야 한다. 이 문학사에는 1931년 작품 『국보적 한글 경탄』 한 편만 실렸으며, 평가도 류만의 문장을 빌려 “우리 글에 대한 자부를 통하여 느끼는 민족적 긍지와 자랑의 감정이 량만적 정서로 노래되어 있다”로 정리되었다.⁵¹⁾ 그렇다면 위의 선집에는 어떤 시들이 실렸으며 또 어떤 평가가 주어졌을까. 세어 보자니 『님의 침묵』 이후 발표된 자유시 14편과 시조 7편 합쳐 21편이 실렸다. 그렇지만 평가는 『국보적 한글 경탄』 단 한 편이었으며, 내용도 1995년 문학사를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⁵²⁾

이것은 ‘주체의 문예이론’의 필자 한중모가 시조 『우리 님』, 『추야몽』, 『무제』 등을 예로 들며 한용운이 “전통적인 민족시가 형식”인 시조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에 맞섰다는 평가와 상통하면서도 대비된다. 류만은 민족어(“우리 글”)를, 한중모는 민족적 시가 형식을 통해 만해 시의 애국주의를 높이 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중모는 따로 『가까날에 대하여』(1926, 선집에서는 『가까날』)를 인용하면서 만해의 시가 “고유한 우리 민족어를 잘 살려 쓰며 《굳세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노래》할 데 대하여 주장했다는 평가도 잊지 않았다. 당연히 이 고평은 만해의 시가 “진보적이며 애국

50) 조지 L. 모스, 오윤성 역, 『전사자 숭배-국가라는 종교의 희생제물』, 문학동네, 2015, 94쪽.

51) 류만, 『조선문학사 9』,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58~59쪽. 이 문학사는 리동수와 무관해 보이지만 그는 “십사 부교수 리동수”로 올라 있다.

52) 류만, 『《1930년대 시선》(1)에 대하여』, 류희정 편, 『현대조선문학선집 26-1930년대 시선 (1)』, 문학예술출판사, 2004, 20쪽. “우리 글에 대한 자부를 통하여 느끼는 민족적 긍지와 자랑의 감정을 량만적 정서로 노래한 한용운의 《국보적 한글 경탄》이 그것이다.

주의적인 사상적 내용을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적 형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는 미학적 견해와 창작 태도”,⁵³⁾ 곧 주체문학론의 핵심 요소에 맞닿아 있다는 판단의 결과였다.

물론 이 발언은 시의 미학 자체보다는 숭고한 민족어와 애국주의를 우선한 이념적 기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현대조선문학선집 26-1930년대 시선 (1)』에는 임학수와 정지용이 함께 실렸다. 해설에서 임학수는 “자연에 의탁하여 조국산천의 아름다움과 민족의 고결함,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비애와 울분, 개탄의 감정”을 노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지용은 “조국의 기묘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치와 풍속을 길은 민족적 정서”로 노래했지만, 그러나 “언어구사 솜씨로 시를 다루는 기교적인 면”이 더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⁵⁴⁾ 이들에 비한다면 한용운은 민족어와 애국주의의 결합과 표현에서 훨씬 강렬하고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훨씬 우세했다. 이와 같은 만해 문학의 특성은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혁명운동에 대한 대중적 계몽과 집단적 선전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었다. 이를테면 김정일의 교시처럼 한용운의 한글 찬양 시는 “우리 민족문화유산 속에 항일혁명문학예술과 같은 영광스러운 전통이 있다는 것”⁵⁵⁾을 확증하는 가장 구체적인 언어예술이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관심과 논의가 드문 만해의 한글 찬양 시와 시조가 북한판 『1930년대 시선』 세 권의 맨 앞에 배치된 진정한 까닭이 여기 있다.

1) 한용운의 시들에서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결코 《님》을 잃은 슬픔이 나 고통, 《님》을 빼앗아간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에 머물고 있지 않다. 그의 시들에서 슬픔과 증오심은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 길에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려는 결사의 사상 감정으로 승화되고 있다.

2) 시에서 《나》의 죽음은 《님》을 위한 죽음, 조국을 위한 죽음이며 이 길에

53) 한중모, 앞의 글, 64쪽.

54) 류만, 앞의 글, 25쪽(임학수) 및 23~24쪽(정지용).

55) 김정일, 앞의 책, 61쪽.

서 삶의 가치를 찾는 바로 여기에서 빼앗긴 나라를 찾는 길에 한 몸 바치려는
서정적 주인공의 열렬한 조국애와 결사의 각오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작성된 립철진의 논고⁵⁶⁾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미래의 조선문학 연구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될 김일성대학의 ‘학보(어문학)’에 수록되었다. 둘째, 그간 어디서도 보이지 않던 김일성의 한용운에 대한 교시가 글머리에 실렸다. 북한 최고의 사상과 이념의 생산 기지인 김일성대학 논문집에 김일성의 직접 호명과 높은 평가가 선명한 한용운론이 실렸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하다. 만해의 시와 사상이 더 이상 주변부의 것이 아님을, 다시 말해 북한관 근현대문학사에서 한용운 문학이 주체문예에 버금가는 주류의 텍스트로 진입했음을 확증하는 선언문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두 인용문에서 공통적인 것은 ‘열렬한 조국애’와 ‘결사의 사상 감정’이다. 이것들은 김일성의 한용운 문학에 대한 교시에서 연원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왜냐하면 만해는 “조선독립은 청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 스스로의 결사적인 행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행동파”⁵⁷⁾였다는 김일성의 고평을 받아 안은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애국주의와 조국 광복의 열망이 한용운 문학과 사상의 복권 및 재평가의 출발점이었음을 우리는 그간 확인해왔다. 드디어 한용운 문학은 김일성의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바꿔 말해 ‘유훈통치’의 권력적 주술과 구조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평가의 지점을 새로이 더하게 되었으니 ‘결사의 사상 감정’이 그것이었다.

시기상으로 보아 ‘결사의 사상 감정’이 주창된 때는 2000년을 전후한 10년 동안 몰아닥친 ‘고난의 행군’ 시기와 거의 맞물린다. 이즈음은 1994년 김일성 사후 위협에 빠진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보위하고 김정일의 안정적인 권력세습을 위해 전력을 다하던 때였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라는 명명이 환기하듯이, 이 시기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노출되어 술한 아사자와

56) 립철진, 「《님》을 노래한 한용운 시문학의 주체사상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10년 제56권 제4호(루게 44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28~32쪽.

57) 김일성 교시의 출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승본 제8권, 389페이지”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2005년 출간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량의 탈북자를 낳는 비극적 사태를 면치 못했다. 당시 새로이 주창된 ‘선군 사상’과 그것의 문예적 형식인 ‘선군(先軍)혁명문학’은 예의 체제 위기를 넘어 어둠과 동시에 김정일의 지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발명된 고도의 권력 장치에 해당했다. ‘선군문예’의 핵심은 “선군시대의 전형적 성격들을 많이 찾아 내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개성적인 인간 형상, 산 인간의 모습으로 잘 그려냄으로써 생활의 선도자로서의 문학의 사명”을 다한다는 데 있었다.⁵⁸⁾ 선군시대의 북한 문학자들은 근대문학 시기 그 문학적 모델을 애국주의와 광복의 열망, 인민에 대한 사랑,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한용운에게서 발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김일성 회고록의 주요 인물로 만해를 불러냄으로써 또 외세의 침략에 맞서 독립운동을 주창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죽음을 아끼지 않는 만해의 ‘결사 항전’의 태도를 높이 삼으로써 한용운 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의 동시대성을 확보함은 물론 그것의 선군혁명문학에 대한 미래성까지도 담보해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결사의 사상 감정’을 새롭게 찾아내고 현실화하기 위해 립철진이 들었던 한용운의 시들이다.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사랑의 측량」, 「나는 잊고자」, 「복종」, 「당신을 보았습니다」, 「참말인가요」, 「오세요」, 「나의 길」 등이 그것이다. 기존의 한글 찬양 시편 등은 제외한 채 오로지 ‘님’을 소재로 한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들은 남한의 연구자와 독자들에게도 ‘님’의 상징성과 그것을 표현한 미학적 탁월성 때문에 끊임없는 상찬과 애독의 지위를 동시에 얻어냈던 작품에 해당된다. 물론 제시한 텍스트들이 남북의 이념과 미학상의 평가 지점에서 다소 상충한다는 사실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님’과 ‘애국주의’, 사랑과 저항정신은 남북이 다 같이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예의 텍스트들은 이후 남북한 통일문학사에서 한용운 항목을 구성할 때 주요한 기준점으로 작동할 듯하다.

58) 직접 인용 및 선군혁명문학에 대한 정의는 김정수, 「선군(先軍)사상의 미학화 비판—2000년 전후 북한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과 글쓰기의 변모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37호, 민족문학사학회, 2008, 388~390쪽.

4. 한용운 · 사회주의 · 결사의 사상 감정

이제야 밝히지만, 북한 문단에서 언급된 최초의 한용운 작품은 시집 『님의 침묵』이 아니라 장편소설 『흑풍』이었다. 이 소설을 처음 언급한 이는 1986년 『조선 근대 및 해방전 현대소설사 연구 (2)』를 펴낸 은종섭이었다. 2년 뒤 리동수가 『님의 침묵』을 소개한 『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를 펴냈으니, 이 시기 북한문단은 시와 소설 장르를 나눠 그간 총화해온 내용을 새로이 정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은종섭에 따르면, 『흑풍』은 외국 배경, 주인공 성격 발전의 부족, 엽기적인 통속소설 경향의 부분적 잔존, 범인도주의에 치중한 사상적 제한성을 가진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 장점으로 지목한 근로인민들의 생활 처지에 대한 계급적 각도의 분석과 리얼리즘적 묘사, 폭력적인 지주와 자본가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징벌에 대한 의지 등에서 읽어낸 최고의 가치는 만해가 “불교승려였으나 빈부의 모순과 대립을 없앨 데 대한 사회주의 사상에 일정하게 공감하고 있었다”는 바로 그 점이었다.⁵⁹⁾

‘사회주의에 대한 공명’이라는 주장이 한용운 문학의 복권과 재평가에서 핵심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문예상식』(1994) ‘한용운’편, 류만의 『조선문학사 9』(1995), 한중모의 평론(1996)에서도 동일한 평가가 반복되는 장면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님의 침묵』은 ‘님’의 상징성과 저항정신을 토대로 한 애국주의와 조국광복의 열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것은 그러나 진보적이라는 평판을 획득할 수는 있었으나 항일혁명운동과 연계된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지향물이라는 고평을 얻을 수 없었다. 북한 문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자본가)와 농민(노동자)의 대립과 갈등을 그린 『흑풍』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흑풍』에 담긴 사회주의 성향은 만해 시편의 진보성을 새로이 제고함은 물론 만해문학을 김일성의 항일혁명문학에 준하는 의미 깊은 ‘유산과 전통’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

59) 은종섭, 『조선 근대 및 해방전 현대소설사 연구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85~91쪽.

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동행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한용운의 작품은 시와 소설을 막론하고 승려라는 신분, 곧 부르주아 지식인이라는 위치와 불교 사상의 제약성, 곧 사회역사관의 비과학성, 그리고 반일혁명운동에 요청되기 마련인 폭력투쟁(무장투쟁)에 대한 외면 때문에 얼마간의 제한적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항일혁명문학’과 진보적 문학 ‘유산과 전통’ 사이에 굵고 높게 쳐진 차이와 서열화의 계선에 완전히 갇힌 형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작품론이 그렇듯이 북한의 사회과학계열에서 한용운의 사상성과 투쟁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제출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한용운을 ‘결사의 사상 감정’의 실천자라고 고평한 김일성의 회고록이 2010년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에 처음 실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놀랄만한 사건은 같은 해 사회과학계 ‘철학’ 분야에 대한 논고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졌다. 해당 서적인 『조선철학전사 8』은 한일강제병합을 전후한 애국계몽기~1919년 3.1운동의 사상과 사상가를 다루며 이준,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와 더불어 한용운을 호명했다. 그러면서 한용운 평가의 맨 앞자리에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실린 회고록 그대로를, 다시 말해 한용운의 독립운동이 “민족 스스로의 결사적인 행동”이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적시했다. 그 까닭은 문학을 제외한 한용운의 불교 사상과 개혁론, 자유와 평등에 대한 견해,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견해의 진보성과 저항성을 더욱 살리는 한편 특히 ‘반일애국사상’의 면모를 항일혁명운동의 전통에 다가서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었다.⁶⁰⁾

이것이 북한 사회과학계의 주류적 입장이 되었음은 역시 동일한 김일성 회고록을 교시로 인용하며 한용운의 ‘반일독립사상’을 또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최근의 논고(2019)에서도 확인된다. 그간 꾸준히 지적되어온 약점에도 불구하고 한용운의 ‘반일독립사상’이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사대주의적이

60) 한원철 · 박춘란, 『조선철학전사 8』(조선사회과학학술집 281 철학편), 사회과학출판사, 2010, 204~248쪽. 이 논고에서도 한용운의 ‘불교사회주의’와 『흑풍』이 “새 사회를 선도하는 사상적 기치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과 동경”을 보여주는 긍정적 변화의 산물로 지목되고 있다.

고 민족허무주의적인 견해에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을 반일독립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 작용을 한 가치 있는 사상”으로 우뚝 서 있다는 주장과 평가가 그것이다.⁶¹⁾ 한용운만의 업적과 변화에 대한 기술에서 벗어나, 급작스레 세습의 지위를 획득한 김정은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변화인지 몰라도, 민족개량주의자와 민족허무주의에 맞선 모델로 만해를 호명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이로써 같은 해 로경철의 『옛 시인에게—만해 한용운을 생각하며』가 김일성을 향한 “존엄과 영광의 노래”로 바쳐진 까닭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것은 맞서야 할 적은 식민주의와 폭력으로 무장한 외세만이 아니라 항일혁명투쟁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는 민족개량주의자와 민족허무주의자이기도 하다는 것, 김일성 유격대가 그랬듯이 한용운도 ‘결사의 사상 감정’으로 민족의 반역자인 그것들에 맞서 애국주의를 발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조치의 일환이었다.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북한에서 한용운 문학의 소개와 해석은 그 자체의 사상과 미학적 성과만으로 복권, 재평가되지 않았다. 한용운 문학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독자들의 애호를 받기 시작한 지난 30년은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세습, 또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과 어린 김정은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기간과 거의 겹친다. 이 기간 북한은 주체-사회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권력의 세습을 안정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수령을 보위하는 ‘선군정치’를 통치의 이념과 방법으로 새롭게 발명했다. 이러한 정치적·군사적 환경 속에서 한용운은 김소월이나 정지용 등과 달리 문학과 사회과학(철학) 모두에서 진보성과 인민성, 그리고 주체사상(문예)과의 연관성을 검토 받았으며 또 그 성취를 인정받게 되기에 이른다. 검토의 범주가 문학과 철학 모두에 걸쳐 있음은 앞서 본 대로다. 이러한 상황은 한용운의 사상과 종교에 대한 사회과학(철학) 분야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의 작품에 부여된 문학사적 가치와 성취에 대한 대폭적 수정이나 폐기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 점, 통일문학사에서 한용운 부분에 대한 남북한

61) 한용각, 『한용운의 반일독립사상의 의의와 제한성』, 『사회과학원학보』 2019년 제4호(투계 제105호), 사회과학출판사, 2019, 45~46쪽.

문학자의 입장과 태도는 민해의 사상과 시학에 엿보이는 어떤 사회주의적 경향 및 반일독립운동에 투영되어 있다고 주장되기 시작한 ‘결사의 사상 감정’에 대한 수용 여부와 처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 참고문헌

- 강영미, 『남북한 시선집의 한용운 시 등재 양상』, 『대동문화연구』 96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 김성수, 『선군(先軍)사상의 미학화 비판—2000년 전후 북한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과 글쓰기의 변모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37호, 민족문학사학회, 2008.
- 김우창, 『일제하 작가의 상황』,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 김흥규, 『님의 소재와 진정한 역사』,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비평사, 1980.
- 남원진, 『북조선 정전, 그리고 문화정치적 기획 (1)—‘현대조선문학선집’ 연구 서설』, 『통일인문학』 67,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6.
- _____, 『북조선 정전집, ‘현대조선문학선집’ 연구 서설—1980년대 중반 이후 『현대조선문학선집(1-53)』 (1987-2011)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6-1, 통일연구원, 2017.
- 리장성, 『«님의 침묵»과 한용운』, 『금수강산』 1993년 6호(루계 제47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1993.
- 림철진, 『«님»을 노래한 한용운 시문학의 주제사상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10년 제56권 제4호(루계 44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 유문선, 『최근 북한 근대문학사 인식의 변화—『현대조선문학선집(1987~)』의 ‘1920~30년대 시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5호, 민족문학사학회, 2007.
- _____, 『북한에서의 만해 한용운 문학 연구』, 『어문연구』 34권 2호, 한국어문교육학회, 2016.
- 최현식, 『북한의 1927~1945년의 ‘현대’ 시사 서술—프로시의 위상과 가치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 탁 진, 『한용운의 시와 «님»』, 『통일문학』 2000년 3호(루계 46호), 평양출판사, 2000.
- 한응각, 『한용운의 반일독립사상의 의의와 제한성』, 『사회과학원학보』 2019년 제4호(루계 제105호), 사회과학출판사, 2019.
- 한중모, 『한용운의 문학창작과 «님»에 대한 사랑』, 『조선문학』 1996년 제3호(루계 58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창비, 2013.
- 김인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는다』, 열림원, 2003.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노동당출판사, 1992.
-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 류 만, 『조선문학사 9』,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 류만·리동수, 『조선문학사 7』,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 류만·최광일의 『조선문학사 16』, 사회과학출판사, 2012.
- 류희정 편, 『현대조선문학선집 13—1920년대 시선 (1)』, 문예출판사, 1991.
- _____, 『현대조선문학선집 26—1930년대 시선 (1)』, 문학예술출판사, 2004.
- 리동수, 『우리나라와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인동, 1989.
-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 I』,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6(2013).
- 은중섭, 『조선 근대 및 해방전 현대소설사 연구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 정홍교 · 박종원, 『조선문학개관 I (원시고대~1920년대 전반기)』, 사회과학출판사, 1986.
- 편집부, 『문예상식』, 문예예술종합출판사, 1994.
- 한계전 편, 『한용운의 님의 침묵』, 서울대출판부, 1996.
- 한원철 · 박춘란, 『조선철학전사 8』(조선사회과학학술집 281 철학편), 사회과학출판사, 2010.
- 한중모 · 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 하루오 시라네(Haruo Shirane) · 스즈키 토미(鈴木登美) 편, 왕숙영 역,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 조지 L. 모스, 오윤성 역, 『전사자 숭배—국가라는 종교의 희생제물』, 문학동네, 2015. 및 권영민 편, 『한용운 문학전집 1—님의 침묵 외』, 태학사, 2011.

Han Yong-woon · Heritage and Traditional · Patriotism

Choi, Hyun-Sik*

This study is written to examine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Han Yong-woon's literature which was dramatically restored and newly valued in the literary circles of North Korea in the late 1980's. Until then, Han Yong-woon's literature was rarely mentioned in the literary world of North Korea under the criticism that it adhered to the literary patterns of the bourgeoisie and contents oriented to Buddhism. By Juche Literature led by Kim Jong-il in the mid-1980's, however, he was newly evaluated for his patriotism, devotion to populism, and active practice of anti-Japanese revolutionary movement. Of course, this change stemmed from a new perception of Han Yong-woon's literature. However, the definite premise was the decision of the party literature (Juche Literature) that Han Yong-woon's literature corresponded to the progressive tradition and legacy that could support Kim Il-sung's anti-Japanese revolutionary movement and the literatu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instatement and reevaluation of Han Yong-un's poetry grounded on the situations focusing on first, literary magazines, contemporary collections of poems, and theses and articles contained in literary newspapers having North Korean people as their readers and second, the official position and evaluation of academic circles represented by 『Chosun History of Literature』. According to the findings, Han Yong-woon's literature was appreciated highly in terms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ha University, professor.

of love towards the nation (sweetheart) and affection towards the people as it could be used to make Kim Il-sung's revolutionary movement and anti-Japanese literature absolute. More importantly, however, to make progressive ideology and patriotism even more noticeable, the literary circles of North Korea did conduct a precise review on it regarding literary forms and rhetoric, too. In addition, Buddhist thinking and imagination which had been pointed out as his limitations came to be newly evaluated in connection with Juche Philosophy, which made it get over the negative value nearly. Currently, Han Yong-woon's works are considered to have risen to a solid status and excellent evaluation in terms of Chosun history of literature in North Korea. It is because his independence movement and work activities went beyond literary history and became listed in Kim Jong-il's 『Juche Theory of Literature』 and Kim Il-sung's memoir, 『Along with the Century』, one of the must-read books in North Korea and a textbook about the spirit of Kim Il Sung.

Key words : Han Yong-woon, North Korea, Joseon Literature History, Patriotism, Anti-Japanese Revolutionary Movement, Juche Literature, Tradition, Heritage, determined death